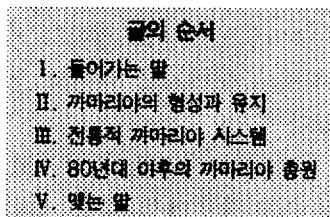


멕시코 까마리야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

임상래(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I. 들어가는 말

'정치적 리더십 획득의 집단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충원 (political recruitment)은 크게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정치엘리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제도나 법적인 기구들과 정치에 대한 일반인의 감정과 태도가 각각의 정치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남미의 경우를 보면 (Blanksten, 1960: 513-515), 피부색, 경제발전정도, 혁명 등의 정치변동, 교육환경, 군경력, 교회, 정당, 이익집단 등의 변수 또는 환경이 정치엘리트 형성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 이 연구는 1997년도 교육부 해외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특유의 사회문화적인 전통으로 중남미 각국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정치충원의 문제에서 가장 흥미롭고 멕시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까마리야’(Camarilla)라고 하는 정치적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의 멕시코 정치사는 까마리야가 정치충원 과정을 설명하는 정당구조나 선거제도 등과 같은 공식적인 요인들의 외곽에 있으면서도 ‘누가’, ‘어떻게’ 정치무대의 정상에 오르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여 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까마리야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에 우선하여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멕시코 정치충원 문화의 또 다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까마리야 시스템이 멕시코 정치에서 갖는 정치적 합의, 특히 정치엘리트 충원에서 갖는 현단계적 의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까마리야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가를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공식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까마리야가 정치 엘리트 충원에 개입하게 되는 ‘관계’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가의 문제에서 ‘누가’는 멕시코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간의 정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는 이러한 관계들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와 자료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까마리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관찰하고 까마리야의 내·외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까마리야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형성된 현단계 멕시코 정치엘리트 그룹의 성격 변화를 규명할 것이다. 까마리야가 정치 엘리트 충원의 경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까마리야 시스템의 변화 양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80년대 이후부터 현정부까지의 내각 구성원간의 차별성과 유사점을 비교 관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실 멕시코 까마리야와 정치엘리트 충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멕시코 못지 않게 미국의 사회과학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까마리야라는 현상이 멕시코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외부자들의 연구와 관찰이 활발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특히 멕시코 까마리야 정치문화 연구의 중심에 있는 Roderic Ai Camp는 혁명이후 살리나스 정부까지의 멕시코 까마리야 정치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우 精緻하게 분석하였다. 멕시코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물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국가의 근대화 정책 현안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역할을 논하고 있거나 형성된 정치 엘리트 그룹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기준의 연구물과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까마리야를 ‘관계’와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80년대 이후 현정부까지의 정치 엘리트 충원의 성격변화를 유형화의 개념들에 맞추어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까마리야의 형성과 유지

까마리야란 멕시코라는 지역적 한계 내에서 이해되는 개념인데다 정치문화를 설명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학술용어도 아니다. 또 그것의 어원적 의미나 시사적인 쓰임새 역시 일치된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는다.¹⁾ 그러나 멕시코 사회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1) 사전적 의미의 까마리야는 ‘국가 또는 중요 인물의 의사결정에 온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또는 ‘정치인의 소집단 내지는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사설고문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iccionario Anaya, Spain, Anaya, 1987; Diccionario Larousse, Mexico, Larousse, 1988; Spanish Dictiona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시사용어로의 까마리야는 사전적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直說의이다. 방송이나 신문(La Jornada 여러호 참조)에선 민간부문 또는 국영기업의 부정 부패한 임원 또는 관료들의 비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며 ‘정치꾼들의 집단’으로 단순화시켜 보기도 한다. 또 집권당내의 반동 또는 보수세력을 지칭하기도 하고 더 큰 범주에서는 정부여당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인식되고 있는 까마리야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까마리야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는 Camp의 입장일 것이다. 정치문화속에서 까마리야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그에 의하면(1993: 114) “까마리야란 공통의 정치적 이익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며 통치권내에서 서로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상호 의존한다”고 정의하였고 이는 멕시코 정치문화의 가장 멕시코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Needler(1982: 55-56) 역시 “각 각의 정치리더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부상조하고 중요 포스트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까마리야(cliques of friends)는 멕시코 정치의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까마리야 형성의 문화적 기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까마리야내(internal-camarilla)의 관계와 까마리야간(inter-camarilla)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왜 까마리야가 멕시코적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 관계의 문화로서의 까마리야

많은 연구들이 멕시코 정치스타일에 영향을 미쳐왔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 중의 하나는 멕시코 사회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다²⁾. 최근의 한 연구조사 역시 대인관계에서의 불신

2) Octavio Paz는 심리적 특성으로의 불신(의구심)은 멕시코인들에게 일종의 자기보호 수단이라고 얘기한다. 그에 의하면 멕시코인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 가지고 있으며 개방이란 일종의 비겁함이며 반역이며 유약함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의구심이 우선되며 따라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외부에 개방되고 노출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El Laberinto de la Soledad,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6: 26-29*). 반면에 Needler는 멕시코인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관심이 적으며 일 개인은 (자기)외부의 현실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숙명주의적 인식이며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다. 때론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기파시가 나타나며 특히 대인관계에서 남성성적 자랑(macho)으로 나타난다. 그는 멕시코인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출현을 역사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논하고 있는데 이는

과 배반당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등의 심리적 특성이 아직도 멕시코 사회 내에서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음을 엿보게 해주고 있다.³⁾

멕시코를 포함하는 중남미의 인간적 유대는 크게 나누어 가족, 대부관계, 친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충성을 강조하며 이는 公私조직에서 nepotism으로 표출되며 따라서 가족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정치나 사업에서 성공하면 이는 가족 모두의 것과 동일시된다. 스페인의 카톨릭 전통에서 유래된 대부관계는 대부와 대자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대부와 생부간의 정치적 유대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사회적 명사나 정치적 유력자는 대부 요청이 많이 받게 되며 때때로 충성을 다짐받고 대부를 허락하기도 한다. 불신의 문화로 인해 멕시코에서 가족 밖의 인간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경우, 서로간의 인적유대를 강화하여 정치적인 그룹을 형성함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획득하기도 한다(Stevens, 1985: 413-414). 특히 멕시코 문화는 일반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친구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중남미에서 얘기하는 아미기스모(amiguismo)란 이러한 친구관계의 확대와 강조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적유대는 ‘믿음과 불신’의 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Camp는 불신의 문화로 인해 멕시코인들은 자기가 속하는 공식적인 기구나 조직의 구조와 구성원보다 자기 팀 또는 그룹의 사람들만

파폐목황제의 저항은 코르테스와 말린체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이달고 신부의 외침은 이뚜르비데의 소수 크리오요에 의해 좌절되었고 베니또 후아레스의 자유주의는 제 2 군주정과 디아스의 권위주의에 의해 실패하였고 마데로의 혁명은 우에르따의 반혁명으로 배반되었다는 인식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과정들이 멕시코인들의 외부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Politics and Society in Mexico*,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71: 75-77).

3) 멕시코국립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거주지, 성, 학력, 소득, 직업, 나이, 정치성향 등을 기준으로 3415명을 표본 추출하여 멕시코인의 의식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중에서, 충실히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능력이 있는 사원과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충성심이 있는 사원 중 누구를 더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8%는 능력을, 40%는 충성도를 우선하겠다고 답하였다(Ulises Beltrán, et, al., *Los mexicanos de los noventa*,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de UNAM, 1997: 104).

을 믿는다고 지적한다. 또 이는 멕시코인의 속성 중 가장 부정적인 것이며 [까마리야를 포함하는]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1983: 27). Needler 역시 멕시코 문화에서는 개별주의(particularism)적 성향이 두드러져 모든 사람이 같은 취급되지 않으며, 예로 이방인이나 외국인은 가족이나 친구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만이 서로에게 더 안전한 믿음을 줄 수 있고 이는 정치에도 반영되어 각각의 정치리더들은 사적인 접촉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982: 55).

멕시코의 믿음과 불신의 문화는 '모두간의 불신'이 '우리끼리의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불신의 다른 모습이 신임이라는 얘기와도 상통한다. 따라서 까마리야는 불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한된 소수끼리의 신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까마리야는 일종의 '정치적 친족'이며 멕시코 통치계급 전체는 하나의 '혁명가족'인 것이다. 까마리야 형성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Camp의 논의에서 간과 또는 축약되어 다루어진 점은 clientelism이다. 전통적 사회관계로의 clientelism에서 patrón(주인 또는 보스)은 고용기회, 특혜, 보호를 제공하고 대신에 cliente(하인 또는 부하)는 노동, 지지, 충성을 바치는 수직적 인적관계를 형성한다.⁴⁾ 따라서 patrón-cliente 관계는 권력과 위치가 다른 행위자간에 일어나는 비공식적, 개별적인 관계의 교환이며 이는 무인칭의 권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사회적 서열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존을 나타낸다. 또 이러한 의존의 관계가 발전되어 지배와 복종의 강조로 이어진다(Kaufman, 1977: 112-113).

patrón으로 행세하기 위해선 예나 지금이나 cliente에게 나눠줄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오늘날 자원이란 정치적 권리의 부여와 제한, 의료와 교육서비스의 분배와 제공, 각종 인허가

4) 이에 대한 개론적 이해는 다음을 참조할 것. Ernest Rossi & Jack Plano, *Latin America: A Polit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1992: 47-48; Barbara A. Tennenbaum(edit),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vol. 4),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6 : 323.

등의 특혜, 고용기회와 은행융자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는 자들은 성공적인 *patrón*이 될 수 있으며 정부 관료는 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patrón*이 될 기회와 가능성은 다른 누구보다도 높다(Amparo Casar, 1997: 104-105). 특히 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는 자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되고 더 많은 *cliente*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상의 *patrón*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patrón*인 동시에 *cliente*가 되는 것이다. 또 이 관계가 정치 권력의 제공과 분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까마리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멕시코 사회에서[조직간이건 개인간이건] 의존과 종속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권위적인 문화 환경 하에서 형성되어온 측면도 있다. 까마리야내의 복종과 충성의 관계도 장기간 계속된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그 뿌리의 부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권위주의의 특성을 분석한 Stevens⁵⁾는 멕시코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과 동일시되는 자만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결정적-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정책결정의 배타성은 분명 까마리야의 형성, 특히 까마리야 참여의 자발적 의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멕시코의 일당통치체제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멕시코혁명이후 사실상의 일당통치체제를 유지해온 멕시코에서 정치지망생들이 택할 수 있는 정치참여경로는 제한되어 있었다. PRI는 정권 획득보다는 현재의 통치권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 다당체제와 비교할 때 정권획득을 위해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충원의 채널들을 가질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또 집권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치충원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전횡적으로 되어 집권계급이외의 다른 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충원 과정이 형성되었다(Camp, 1993: 103-104). 당연히 정

5) 저자는 Juan Linz의 권위주의에 대한 4 가지 특성(제한된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의 미완성, 제한된 동원, 결정적-배타적 엘리트집단)을 중심으로 멕시코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1985: 411).

치지망생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까마리야 편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2. internal과 inter의 과정으로서의 까마리야

“누가 누구의 까마리야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정치인의 행동이나 행태가 자신이 추종하는 이념이나 관심보다 소속 까마리야의 장(長)과 동일시 될 때 그는 그 리더의 까마리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리더와 구성원간의 일치는 이들간의 상호관계, 즉 위에서 내려오는 ‘후원’과 위로 향하는 ‘충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더에서 추종자로 내려오는 관계는 리더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까마리야 리더의 필수조건이며 까마리야내의 후원-충성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는 관료기구 내에서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소속단체 또는 외곽에 자기 멤버를 위치시키게 되며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구성원들에게 확보해 준다. 따라서 리더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충원을 담당하게 된다(Stevens, 1985: 425). 구성원에서 리더로 향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후원의 제공은 이에 대한 정치적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선택과 승진의 기준이 결정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까마리야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람들 을 더 ‘심고’ 그럼으로써 서로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권력 기반을 확대시키는 공간으로 까마리야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일찍이 학창시절에 까마리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⁶⁾ 이 경우 구성

6)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 까마리야의 형성은 정치 입문이전인 학창시절에 형성되기 고하고 또는 그 이후에 형성되기도 하는데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구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학계나 실업계 등의 다른 사회부문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적 리더십이 멕시코시티가 아닌 북부의 몬테레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까마리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Jorge Mejia Prieto, *Mexicanos Triunfadores*, Mexico: Panorama, 1992.; Roderic Ai Camp, *Los empresarios y la política en México*,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9를 참조할 것.

원은 리더로부터 훗날의 정치적 충성을 담보로 장학금이나 인턴쉽 등을 제공받으면서 정치 입문의 가능성을 확보한다.⁷⁾ 까마리야는 빈번하게 젊은 정치지망생들에게 홀륭한 '견습과 훈련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셈이다.

까마리야의 변동에 대한 이해는 까마리야의 규모 또는 크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까마리야내에서 그리고 까마리야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전체로서의 까마리야가 축소 또는 확대되는 문제이며 이는 까마리야의 힘이 미치는 영역의 한계가 이전에 비해 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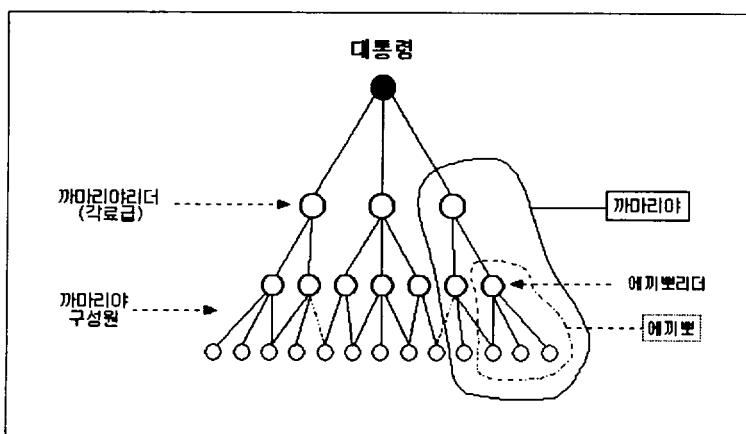
까마리야의 權域은 리더가 도달하는 정치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리더의 정치적 위치가 장관에 이른다면 그 하위에 있는 그의 사람들로 까마리야가 구성되는 것이고 만약 그가 국장에 머문다면 그 까마리야는 국장 이하로 한정되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까마리야의 권역은 리더가 각료급에 해당하고 그 하위의 추종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가진 멕시코에서 집권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직전 각 까마리야간에 연합과 대립의 경쟁이 본격화되어 까마리야간의 구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물론 각각의 각료가 자신의 까마리야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까마리야내의 리더와 구성원이 동시에 장관직을 수행하여 한 까마리야에서 복수의 각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그 까마리야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또는 특정 까마리야의 세력이 강력하여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

7) 예로, 살리나스와 세디요는 교수활동을 통해 자신의 공직 캐리어를 상승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을 받았고 또 그의 학생들은 이들을 통해 정부에서 인턴쉽이나 시간제 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졸업 후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Camp, 1993: 107-108). 델라마드리드는 대학 은사의 추천으로 중앙은행에서 정치입문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살리나스의 경우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베떼따가 하바드 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도록 장학금을 후원하였고 이 후 델라마드리드가 장관으로 있던 재무부에 그를 차관으로 스카웃하게 하였다(Camp, 1990: 94-95). 또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 대학 졸업 후 또는 유학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부기관의 *asesor* 또는 *analista*라는 일종의 '객원연구원'으로 경력을 쌓고 공직에 입문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멕시코에선 일반적인 일이다.

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가진 멕시코에서 까마리야간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최고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는 모든 까마리야의 리더가 되는 셈인데 이 경우 통치권 전체는 하나의 까마리야 즉, 'PRI 까마리야' 또는 '혁명가족'이 되는 것이다. 까마리야가 단계의 피라미드 구조임을 고려하면 더 축소된 유형의 까마리야도 있을 수 있다. 그림⁹⁾에서처럼 다층(multilevel)구조의 까마리야에서 중간 리더는 자신들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까마리야내의 미니까마리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에끼뽀(equipo)¹⁰⁾라고 한다. 이 미니까마리야는 소속 까마리야의 리더가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까마리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된 까마리야의 리더는 중간 리더들을 각료급의 요직에 등용하기 때문에 미니까마리야가 까마리야로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 8) 예를 들어 PRI내 보수파의 대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Hank González 까마리야는 살리나스와 세디요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다. 세디요 정부의 Hank González 까마리야는 José Ignacio Pichardo Pagaza와 전멕시코주지사 Emilio Chuayffet 등이다.
- 9) 위의 그림은 Cornelius & Craig(1988: 446)의 멕시코 정치 엘리트 구조도를 기초로 하여 혁명가족, 까마리야, 미니까마리야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10) 까마리야라는 용어가 부정적 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까마리야를 대신하여 에끼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행정부내의 특정 까마리야의 교체나 강화는 리더의 영향력 증감과 정권교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리더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그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면 까마리야는 확대되며 내부의 상하관계도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리더의 힘이 축소되면 그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정권이 교체되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까마리야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상례이다. 두 경우 모두 까마리야 내부의 상호관계도 변하게 됨은 당연하다. 장기화된 일당통치로 멕시코 집권층은 상호간 중첩되고 서로 협화된 까마리야 환경 하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정 까마리야의 리더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한계에 이른다면 추종자들은 다른 까마리야로 이동하기도 한다. 즉, 리더와 구 성원간의 관계로 볼 때 까마리야란 매우 유동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Camp, 1993: 115). 따라서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까마리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까마리야와도 연계를 가지게 된다.

III. 전통적 까마리야 시스템

1. 카르데나스 까마리야

멕시코 정치는 멕시코혁명 이후 줄곧 PRI 또는 혁명가문이라는 집권블록 내 까마리야간의 상호관계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혁명이후 형성된 까마리야는 그들간에 권력을 ‘주고, 받고, 나누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 혁명이 완료된 이후 혁명정신에 기초한 전통적 까마리야 시스템의 기원은 카르데나스 (Lázaro Cárdenas)와 알레만(Miguel Alemán)이라고 할 수 있다.

까마리야의 정점인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이 확립된 것은 카르데나스 통치기였다. 그는 PRI의 전신인 PNR(국가혁명당)을 재정비하고

CTM(노총)과 CNC(농민연맹)을 조직함으로써 사적이고 지역적인 권력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여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로서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내각은 물론이고 당과 의회, 주정부, 사법부, 군부에 이르는 정치 엘리트의 행동과 구성에 미치게 되었다.

혁명의 건설기라고 할 수 있는 카르데나스 집권 이전인 1920-34년 동안 전체 중요 공직의 절반 이상이 혁명전쟁에 참여한 군 경험자들에 의해 충원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카르데나스 까마리야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카르데나스 통치기에서도 혁명 참여가 정치엘리트 충원의 대원칙이었다. 대통령 한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정치충원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그의 협력자 1/3이 혁명과정의 동지로 채워졌다. 물론 그가 정계에 입문 하여(Michoacán 주지사 시절) 친소관계를 형성하였던 교수와 학생 학계인사 등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협력자들을 충원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카르데나스가 정치충원에서 혁명을 강조한 것은 멕시코 혁명의 정통성 강조와 혁명정신의 계승·발전이라는 측면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Camp, 1993: 106-107).

혁명에 참여한 자들에 의해 통치된 기간 동안 혁명 경험이 승진과 발탁의 중요 기준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데나스 통치기에서부터 내각의 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전체의 50%정도가 고등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다음 세대 정치엘리트 충원기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카르데나스의 정치충원에서 주목할 만 한 변화는 노동자단체에서 관료나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노동-농민단체와의 연대가 강화된 카르데나스 집권 말기에 노조지도자들의 지방과 연방의회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다(León & Marván, 1985: 299-301). 이를 정치 엘리트들은 지역적 또는 분야별 대중조직을 공고화하고 이를 통해 중앙 권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요약해보면 카르데나스의 정치충원에선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집권당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부각되는 형국이긴 했으나 여전히 혁명정신의 계승이 그 대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 또는 선출직 경험 등의 조건들이 명확히 고려되지 않았다.

2. 혁명후 리더십의 까마리야

카르데나스의 후계자였던 알레만 시대에 오면 몇 가지 팔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는 정치 충원의 문제에서 카르데나스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¹¹⁾과 관료적 접촉을 강조하였다. 사실 멕시코 정치에서 알레만 시대의 개막은 민간인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ENP에서 수학하고 UNAM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알레만은 청년시절부터 친구와 선배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그룹¹²⁾을 조직하여 정치입문의 기초를 다쳤다고 한다. 이들 젊은 예비 정치인들은 훗날 알레만이 대통령이 된 후 내각을 구성하는 주역이 되었다. ENP 출신으로는 Antonio Ortiz Mena(교육부장관), Héctor Pérez Martínez(내무부장관)가 알레만 정부에 참여하였고 UNAM의 동문 중에는 Manuel Sánchez Cuen(상공부차관), Andrés Serra Rojas(노동부장관, 대통령자문),

11) 19세기 정치충원과정에서 교육이 크게 중요시되지는 않았지만 동 세기 중반 Gabino Barreda가 중심이 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ENP(Escuela Nacional Preparatoria)에서는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전통이 금세기 들어 혁명후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Justo Sierra, Alfonso Herrera, Miguel E. Schultz, José Vasconcelos, Antonio Caso, Pedro de Alba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Camp, 1993, *op. cit.*, p. 106, *El Calendario Chico del Gobierno del Estado de Nuevo León*(<http://www.pixel.com.mx/info-gral/info-mex/pasajes/preparat.html>).

12) 알레만은 ENP 재학시절 Agustín Millán, Antonio Ortiz Mena, Héctor Pérez Martínez 등과 함께 'H-1920'을 조직하였다. 이들의 서약서에는 "사회-정치적 생활에 있어 서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구성원은 모임에서 축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은 '정치적 형제애'를 공유하게 되었다. Enrique Krauze, *La Presidencia Imperial, Ascenso y caída del sistema político mexicano(1940-1996)*, Mexico, Tusqueta Editores, 1997: 90.

Manuel Ramírez Vázquez(노동부장관), Luis Garrido Díaz(UNAM 총장), Antonio Carrillo Flores(재무부장관), Alfonso Noriega(제당공사사장), Antonio Dovalí Jaime(공공사업부장관), José Castro Estrada(대법원판사, 임업공사사장) 등이 알레만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당연히 내각구성원의 학력도 상승하여 ENP와 UNAM 시절의 친구와 교수들을 포함하여 알레만 정부 하에서 전체 내각의 75%가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Krauze, 1997: 88-91, 147 ; Camp, 1992).

알레만 정부 하에서 고등교육이 정치충원의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 까마리야 구성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혁명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혁명 리더십과 비교할 때 혁명전쟁에 참가한 군 경력이 현저히 축소되고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었다.

고등교육의 강조라는 새로운 경향은 60-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충원에 있어 대학교육이 강조되어 멕시코국립대 출신이 선호되었고 도시, 특히 수도 출신의 정계 입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또 연방정부의 관료출신이 크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법학사출신이 주를 이루었고 학생이라도 정치에 조기에 입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Camp, 1993: 116). 특히 “정치적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할 가장 확실한 코스중의 하나는 UNAM에서 수학하는 것이다”라는 전통이 불문율이 되었다.

고등학력의 중요성과 함께 40년대 이후의 정치 충원에서 언급할 만 한 사항은 정치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협상력, 정책결정의 신중함, 실용적인 정치력 등의 정치적 속성 또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들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인으로서의 요건들은 행정부, 선거직, 당직 경험들을 통해 검증되었다(Hernández, 1992: 239-240). 즉 이 기간에 관료, 선출직, 당료의 세가지의 정치 엘리트의 형성 공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80년대 이후의 까마리야 충원

오늘날 멕시코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까마리야 충원의 3 가지 원천은 크게 가족관계, 교육배경, 전문경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가족 모두의 것과 동일시되는 풍토 때문에 멕시코 까마리야에서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결정적이다. 멕시코 정치 지도자중 상당수가 형제간 또는 부자간의 혈연관계를 통해 정치에 등용된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자에게 사회생활에서 안면을 통한 연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가족관계를 통한 知人的 확대로 수월하게 이를 수 있다. 정치명문가에서 성장한 어린이는 정치적 인물들과 접촉할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는 멕시코사티이건 지방이건 마찬가지이다. 또 때때로 자신의 부·모계의 성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직도 가족관계에 기초한 까마리야에 속한 정치인은 동료들에 비해 매우 유리하게 정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¹³⁾ 이들은 정치입문의 '특차합격생'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정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펴져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기초한 까마리야의 가족우선주의는 일정 기간에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또 가족관계가 정치 엘리트 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객관적 준거에 의해 관찰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다. 이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들에 의하면 멕시코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강조 현상이 약간의 감소를 보이긴 하지만 역시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¹⁴⁾

13) 예로, 멕시코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현 대통령인 Zedillo을 제외하고) 정치명문가에서 성장하여 이로 인해 남들 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수월하게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델라마드리드 대통령의 경우, 그의 부친은 변호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혁명전 Colima주의 주지사를 역임하였다. 살리나스 가문은 아버지인 Raúl Salinas Lozano가 상공부장관(1958-1964)을 지낸 Monterrey의 명문가이다(Camp, 1992).

14) Basáñez(1996: 123)에 의하면 1934-86 동안 멕시코 정치에서 nepotism은 76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이 역시 각 행정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일반적인 추세라

이에 반해 까마리야의 내부적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변화의 양상을 비교적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학력사항과 사회경력 등의 요소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20년 동안의 까마리야를 통한 정치 엘리트들의 교육수준과 사회경력의 변화 양상을 대통령 비서실과 장관들(20-23명)로 구성된 취임내각을 통해 분석하고¹⁵⁾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멕시코 정치에서 까마리야가 내포하고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한다.

1. 까마리야 정치 충원의 변화

(1) 박사내각의 강화

까마리야의 최정상인 대통령의 경우, 델라마드리드는 하버드 MBA이고 살리나스와 세디요는 경제학 박사이다. 또 이들 행정부의 각료들 상당수가 대학원 이상의 학위자들로 충원되었다. 이는 멕시코 정치에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의 상승과 함께 델라마드리드 이후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바로 해외유학파의 증가이다. 델라마드리드는 하버드에서 수학했고 살리나스는 하버드 출신인 부친의 뒤를 따랐다. 세디요 역시 예일 출신인 그의 까마리야 리더인 Leopoldo Solís를 따랐다.

고 단정하긴 힘들다. 또 Beltrán(1997: 105)의 연구에서 당신이 만약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하는 입장의 공무원이라면 공학도인 아들과 능력이 겸증된 엔지니어 중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는 설문에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택한 자는 53% 이었고 아들이라고 답한 사람은 26% 이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멕시코에서의 가족관계의 강조가 예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15) 참고로 멕시코 행정부의 고위관료 숫자는 국장(director general, 국영기업의 사장을 칭하기도 한다)에서 장관급까지는 약 1,000명 정도이며 oficial mayor 이상으로는 약 300정도이며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영기업(Pemex, Infonavit, IMSS, Banxico, Nafinsa, CFE 등)사장을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는 약 60 여명 정도이다. oficial mayor란 차관급에 해당하는데 멕시코 외무부의 경우, 장관 밑에 4명의 차관(미주·유럽차관, 중남미·カリ브차관, 유엔·아프리카·중동차관)이 있고 한 명의 oficial mayor가 있는데 그 밑에는 인사, 예산, 법률, 공보 등을 담당하는 5개국이 있다. Amparo Casar, *op. cit.*, pp. 56-57, Presidency of Mexico, *Mexican Agenda*, 1991, pp. 181-194, *Organigrama de la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http://www.sre.gob.mx/acerca/> organigrama)

외국, 특히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멕시코 대통령이 되는 필수코스가 된 것이다.

각 행정부의 각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텔라마드리드 정부 이후 대학원 이상의 고급학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박사학위 취득은 텔라마드리드 24%, 살리나스 35%, 세디요 취임 초에는 36%에서 현 내각에서는 40%로 고위 공직자의 학위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사학위 수학국을 보면 미국과 영국, 불란서, 네덜란드 등의 유럽의 유명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세디요 정부에서는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각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멕시코에서 중요공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류대학의 박사학위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취득학위별 각료 구성(최종학위기준)*

구 분	학사(국내/국외)	석사(국내/국외)	박사(국내/국외)	계
López Portillo 행정부(21명)	17(17/0)	2(0/2)	1(0/1)	20(1명 자료없음)
De la Madrid 행정부(21명)	10(10/0)	6(0/6)	5(2/3)	21
Salinas 행정부(23명)	13(13/0)	2(1/1)	8(3/5)	23
Zedillo 행정부(22명)	5(5/0)	9(6/3)	8(1/7)	22
Zedillo 행정부(20명)	3(3/0)	9(1/8)	8(3/5)	20

* 이하 모든 표는 부록을 자료를 하였음.

(2) 사학의 부상과 경제학으로의 이동

중요한 변화는 전공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나라 건 법학은 정치인들의 전공분야이며 법대는 미래의 정치지도자들의 장으로 간주된다. 멕시코의 경우, 알레만 정부 이후 모든 대통령은 UNAM 법대 출신이었으며 각료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에서 충원되었다(Camp,

1996: 288-289).

멕시코에서 법학에서 비법학분야로의 전공 다양화 현상은 살리나스 정부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법학이 다수 전공이었던 로페스 포르티요에서 펠라마드리드 정부들어서는 법학 대 비법학의 비율이 비슷한 균형을 이루다가 살리나스 이후 경제학이 다수 전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국가경제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경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살리나스는 최초의 경제학도 출신 대통령이었고 현 세디요 대통령도 경제학 전공자였다. 이들 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법학 전공의 감소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기타 전공의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살리나스 정부에서는 내각의 1/3이 이상이 경제전공자들로 채워졌고 세디요 취임 내각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현 내각에서도 경제전공자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에서 탈법학과 경제학집중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2〉 전공분야별 각료 구성(전공분야는 최종학위 기준)

구 분	법학	경제(경영)학	기 타	계
López Portillo 행정부(21명)	8	4	8(건축(2), 공학, 정치학 등)	20(1명 자료없음)
De la Madrid 행정부(21명)	6	7	8(행정, 농학, 공학, 회계 등)	21
Salinas 행정부(23명)	2	8	14(1명 복수박사학위, 정치학(3), 사회학, 공학 등)	23
Zedillo 행정부(22명)	3	12	8(1명 복수석사학위, 행정학(3), 인류학, 의학 등)	22
Zedillo 행정부(20명)	3	7	10(행정학, 사회학 등)	20

전공분야의 다양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는 사립교육의 부상이다. 정치 엘리트의 UNAM 집중에서 벗어나 사립대학 출신들이 고위공직에 등용되는 예가 많아졌다. 특히, 살리나스와 세디요 정부

하에서 Universidad Iberoamericana, Colmex(Colegio de México), ITAM(Instituto Tecnológico Autónomo de México), Itesm(Instituto Tecnológico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등의 사립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공립교육이 퇴조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여건이 향상된 사립대학들에 모여드는 멕시코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살리나스(ITAM)와 세디요(Colmex)의 경우처럼, 많은 정치엘리트들이 이들 대학에서 교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도 의회와 주정부까지를 포함하는 멕시코 정치엘리트들은 UNAM 법대 출신이 주를 이루지만 델라마드리드 이후의 고위관료들의 경우에는 이후 법학중심과 UNAM집중현상은 사라지면서 정치리더 충원에서 전공분야와 출신교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도집중의 강화

전공과 출신교의 다양화의 함께 출신지역의 집중화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멕시코 정치엘리트들의 수도집중현상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델라마드리드 정부 이후, 특히 세디요정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어 중앙정부 요직을 ‘칠랑고’(chilango, 수도출신을 가리키는 말)들이 독점하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다 지방에서 출생하였지만 수도에서 성장한 숫자를 포함하면 내각의 대부분이 멕시코시티에서 충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 공직자의 출신지역이 멕시코시티에 집중되는 것은 주정부의 공직경험이 정계진출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는 미국과는 상이하게 멕시코에선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주 정부를 압도하여 크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각료충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우월 현상이 수도 집중이라는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Camp, 1993: 109-110). 이와 함께 고등교육의 경우처럼, 사회-문화적인 혜택과 기회가 ‘멕시코의 절반’인 멕시코시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멕시코에서 수도에서 출생한다는 것은 정치적 성공을 가능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출신지별 각료 구성(%는 전체 각료 대비 비율)

구 분	멕시코시티	기 타 지 역
López Portillo 행정부(21명)	7(33%)	Guanajuato(3), Veracruz(2), Hidalgo(2), 멕시코주, Chihuahua, Nuevo León, Baja California, Tamaulipas, Campeche, 스위스
De la Madrid 행정부(21명)	11(52%)	Veracruz(3), Guanajuato(2), Puebla, Sonora, Guerrero, Michoacán, Jalisco
Salinas 행정부(23명)	11(48%)	Veracruz(3), Puebla, 멕시코주, Chihuahua, Sinaloa, Yucatán, Jalisco, Aguascalientes, Chiapas, 불란서
Zedillo 정부(22명)	13(59%)	Chihuahua(2), Puebla, 멕시코주, Tamaulipas, Tlaxcala, Guanajuato, Querétaro, Tabasco
Zedillo 행정부(20명)	13(65%)	Chihuahua(2), Puebla, Hidalgo, Tamaulipas, Sinaloa, Tlaxcala

멕시코시티 이외의 지역으로는 베라크루즈, 과나후아토, 푸에블라, 치와와 출신 정치인들이 꾸준히 내각에 등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내각의 연소화와 여성각료의 증가

최근 들어 대통령을 포함하는 멕시코 고위공직의 충원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델라마드리드는 48세에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살리나스는 40세, 그리고 세디요는 43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대통령의 각료들을 보면, 델라마드리드와 살리나스 정부에서는 30-40대와 50대 이상이 비슷한 숫자를 차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각료들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임초기에는 73%였고 현재도 65%의 각료가 40대로 충원되어 있다. 이는 정치경력을 쌓으면서 같이 활동했던 까마리야의 동료들이 대통령의 사람들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세디요 까마리야의 구성이 연령대별로 넓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4〉 연령대별 각료 구성

구 분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López Portillo 행정부(21명)	2	7	9	3
De la Madrid 행정부(21명)	4	7	5	5
Salinas 행정부(23명)	7	3	5	8
Zedillo 행정부(22명)	1	16	5	0
Zedillo 행정부(20명)	0	13	4	3

각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내각에 참여한 것은 1980년 1년간이 전부였다. 이를 제외하곤 역대 멕시코 정부의 내각은 남성전용이었다. 그러나 살리나스 대통령은 연방감사원장과 어업부에 여성을 임명하였고 현정부 초기 내각에서는 3명의 여성장관이 내각에 참여했고 현재는 외무와 어업환경 정책을 여성이 이끌고 있다. 이는 멕시코 사회 특유의 마치스모가 희석되면서 여권이 신장되었다는 점과 가족제도가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된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각료 충원과 사회 경력

교육배경이나 출신지 등과 함께 멕시코 내각구성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은 교수경력, 전문직 종사, 입당여부와 당직역임, 선출직 관련 경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멕시코 까마리야 충원에서 나타나는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은 이전과 비교할 때 살리나스와 세디요 두 정부의 각료 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교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취득 학위 수준이 상승한 살리나스정부와 세디요 정부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상당수가 학계에서 충원된다는 사실과 함께 대학 강의를 통해 리더와 구성원 관계를 확대시키는 공간으로 까마리야가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마드리드와 살리나스 정부의 국장급 이상 관료를 대상으로 당·정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Amparo Casar, 1997: 59-62)에 의하면 당직을 보유했거나 또는 당직을 거친 관료는 델라마드리드 정부에서는 77.3%이었고 살리나스 정부에서는 77.5%로 비슷하게 나와있다. 또 고위당직경력만을 보면 델라마드리드와 살리나스 정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각료와 국영기업사장단의 선출직 경력자 비율은 델라마드리드 정부에서는 34.4%, 살리나스 정부에서는 45.16%이다.

이를 각 정부별 각료구성으로 보면 여당과의 관계나 선출직 경력 유무에 있어 각 행정부별로 특이한 변화는 없다. 다만 세디요 정부의 취임 초와 현 내각을 비교할 때 당료 경험자와 선출직 경력자가 내각구성에서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료충원과 당직·선출직 경력간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출직 경력의 경우, 상원과 주지사에서 입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방하원과 시장 출신도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표 5〉 사회경력과 각료구성(%는 전체 각료 대비 비율)

구 분	교수경험	입당 또는 당직역임	선출직
Lopez Portillo 행정부(21명)	12(57%)	15(71%)	6
De la Madrid 행정부(21명)	11(52%)	12(57%)	1
Salinas 행정부(23명)	15(65%)	17(74%)	5
Zedillo 행정부(22명)	13(59%)	13(59%)	4
Zedillo 행정부(20명)	14(70%)	8(40%)	3

2. 정치엘리트 충원 성격의 변화

오늘날 멕시코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까마리야 충원의 네포티즘적 경향, 즉 가족을 통한 사적 네트워크의 확대와 그것을 이용한 정치적 성공 현상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를 제외한 교육배경과 사회경력은 80년대 이후 멕시코 정치 엘리트 충원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 정치는 혁명이후에는 혁명가 또는 군인에서 범률가로 이어지는 전통적 리더쉽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듯 하다. 정치 엘리트들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들을 유형화시킨다면 *políticos* (*politicians*)와 *técnicos* (*technocrats*)로 대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 리더쉽에 기초한 *políticos*란 멕시코 혁명에 참가했거나 혁명정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추종하며 노동자나 농민 등의 직능단체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 또 이를 기반으로 선출직이나 당직의 이력을 갖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에 *técnicos*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받고 따라서 당이나 선거판에서보다는 자신의 정치경력의 연방관료로 채우며 대중과의 접촉을 적은 편이다. 이들은 일종의 비정치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를 *técnicos/políticos*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특정 문제를 놓고 이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석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Pemex의 민영화 사안이라든지 콜로시오 후보의 암살 등과 같은 정책상의 이슈 또는 사건들을 양자간의 대립과 충돌이라는 도식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해진다. 즉 정치 엘리트의 문화와 다원성을 간과하는 이러한 양단법적 구분은 변화에 대한 저항은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보수적 정치인에서 나온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técnicos* 건 *políticos* 건 일사불란하게 1대1로 갈라져 서로를 경계하면서 대립하지도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políticos*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해외유학파일수도 있고

반대로 tecnicos 중에서도 더 이념지향적인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멕시코 정치 엘리트의 성격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Centeno와 Maxfield(1992: 59-64)는 멕시코 정치 엘리트를 politicos, buro-politicos, tecnicos, tecnoburocratas의 4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politicos(전통적-전문적 정치인)는 구세대에 해당하며 농민-노동자 가정 출신이 많으며 교육수준은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고 정부의 관료경험보다는 대중과의 접촉이 많다. buro-politicos(관료정치인)는 중산층 출신이 많으며 정계입문에 가족이 후원이 있으며 주로 법학을 전공하고 당과 정부에서 정치경력을 쌓은 경우이다. tecnicos(전문관료)는 나이가 많은 편이며 도시의 중산층 출신이 많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며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며 선거나 당직 경험은 적으며 주로 중앙은행, 보건, 농업, 외무부에서 주로 장기간 활동한 정치인들이다. tecnoburocratas(정치관료)는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당의 정책위원회와 대선참모로 정치적 경력을 쌓고서 주로 경제관련 부처에서 활동한 정치 엘리트들이다.

이러한 유형 분석에 의하면 멕시코 정치 엘리트는 카르데나스 정부에서는 politicos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이 강조되고 민간인 정치가 시작된 알레만 정부에서 80년대 이전까지는 politicos, buro-politicos, tecnicos로 정치 엘리트 유형이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의 각 행정부의 각료 구성을 보면 전통적 정치인과 전문관료가 감소하고 buro-politicos와 tecnoburocratas가 멕시코 정치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현 세디요 정부의 각료들은 tecnoburocratas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학원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엘리트들이 다수를 이루며 출신지역으로는 멕시코시티가 압도적이다. 또 80년대 이전 행정부와 비교할 때 입각 이전 주정부나 선출직 경력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감소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전문경력과 전공분야는 충분히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tecnoburocaratas는

Camp가 지적한 살리나스 이후의 테크노그라트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¹⁶⁾. 또 각료들의 상당수가 상공부, Nafinsa, 재무부, Nafta 실무단, 대통령선거본부에서 활동하였다.

Centeno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각 구성원의 연소화와 여성 각료의 증가 등도 현 정부의 tencocracy 리더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내각구성을 통해 보면 내각이 짚어졌다는 것은 politicos와 tecnicos가 buro-politicos와 tecnoburocratas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여성이 각료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보다는 MLD(민주주의여성투쟁), CF(여성연합), CFD(민주주의를 위한 여성의회)와 같은 여권운동의 활성화되어 생겨난 사회적 요구의 다원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형의 분화를 통해 본 멕시코 정치엘리트 충원 성격의 변화는 멕시코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内外적인 환경 변화와 (국가가 판단하는) 동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tecnicos의 출현은 근대화 정책 추진을 겨냥한 경제의 점증하는 복잡성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ISI 정책이 소진되면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상승되어 이를 국영기업의 확대에 기대하거나(Echeverría) 경제의 석유화 정책으로(Portillo)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테크노크라트 리더쉽이 강조되었고(Knight, 1993: 59-60) 특히 82년의 금융위기 이후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 등의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요구되면서 정치 엘리트의 상당 부분이 tecnoburocratas에 의해 충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 엘리트 충원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비경제적, 특히 정치적 변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테크노크라트 리더쉽의 부상은 당-정관계, 즉 당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력이 점증하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정부내

16) 그에 의하면 테크노크라트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정치경력의 대부분을 연방관료에 기초하며 따라서 대중과의 접촉을 적은 편이다. 또 멕시코시티 등의 대도시출신이며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수학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993: 118-119).

여러 관료기구간의 역학관계의 변화 역시 정치 엘리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대통령비서실과 예산기획부(SPP)의 영향력이 타부처를 능가하는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역할에다 정치적 권위가 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enteno & Maxfield, 1992: 77-78).

V. 맺는 말

멕시코에선 혼히들 사회적 성공을 위해 ‘confianza’(신임)와 ‘palanca’(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confianza란 누구로부터 신임(인정)을 받는다는 뜻보다는 ‘믿을 만한(사람)’을 의미한다. 즉, 서로간에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alanca란 우리 식으로 ‘연줄’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보다 연줄이 더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복과 연줄의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중의 하나가 바로 까마리야인 것이다. 다시 말해, 까마리야는 공식적인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중요하게 개입되는 멕시코 정치의 특수성을 엿보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까마리야는 배타적이며 비공식적이며 은밀한 관계이다. 까마리야의 형성은 가족관계, 출신지, 교육 배경 등에 기초한 친소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며 리더를 중심으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리더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까마리야에서 리더는 추종자에게 정치적 편의와 특권을 제공하고 대신 자신의 정치적 상승에 필요한 충성, 규율, 복종, 정보, 봉사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시키려 하기 때문에 은밀하다. 따라서 까마리야는 정치 엘리트로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다.

까마리야가 내포한 정치적 의미는 우선 까마리야가 멕시코 정치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는 후원에 의존하게 되고 충성에 종속되는 까마리야의 내적(internal) 관계에서 온

다. 까마리야는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직이나 기구의 원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멕시코중앙은행(Banxico)처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해 일단 형성된 까마리야는 기구내의 정책과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독점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멕시코 주권 수호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유공사(Pemex)의 경우는 전문지식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는 바람에 '6년살이'의 지도부에 의해 생산과 수출에 대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¹⁷⁾

다음으로 까마리야의 정치적 합의를 까마리야간(inter)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우선, 모든 까마리야의 총합으로서의 까마리야, 즉 혁명족으로의 까마리야는 멕시코 정치 개혁의 基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치에서 선택의 문제는 최고 권력자를 정점으로 한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특히 각종 인사에 있어 대통령의 의지는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절대적이다. 멕시코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통치란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단 취임을 하면 멕시코의 대통령은 당의장, 주지사, 상하원 의원, 시장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후보까지도 지명하는 초헌법적(meta-constitucional)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 취임 이전이라도 PRI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면 정치 전통에 따라 고위 당료를 교체할 수 있다. 당의장이나 선거본부장에는 보통 최측근이 임명되며 당은 대선을 위해 선거도구화(vehículo)된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은 차기 각료의 자리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무제한의 가까운 대통령의 권한으로 멕시코에서 피선택자의 노력과 의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까마리야의 정치에서 후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리더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까마리야 내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성향, 사상, 자질을 가진 자로 선호하며 이는

17) 1982년 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Julio Moctezuma Cid와 당시 에너지 장관인 José Andrés de Oteyza는 Díaz Serrano의 저유가정책을 무시하고 원유가를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국가수입이 급감되었고 이것이 82년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uis Pazos, *Hacia dónde va Salinas*, Mexico, Diana, 1989: 195.

정치엘리트가 비슷한 유형으로 계승 발전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멕시코의 엘리트 충원체제는 외생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멕시코에서 정치개혁의 실현 여부는 (여야관계의 변동이나 국제상황의 변화 등의 변수와 함께) 까마리야 내부에서 오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성공적인 까마리야의 리더는 대통령이 되며 이는 모든 통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전망은 궁극적으로 까마리야의 총수(jefe máximo)인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혁명가족의 하부 그룹으로서의 까마리야가 정치 엘리트 충원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이다. 특히 이는 충원된 정치 엘리트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까마리야는 멕시코 정치 엘리트 충원 메카니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치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tecnicos/politicos로 대별해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는 politicos의 시대(혁명직후)에서 tecnicos/buro-politicos로 그리고 buro-politicos/ tecnoburocratas 시대를 거쳐 살리나스 이후 tecnoburocratas 중심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의 이념적 지향이 "안정을 확실히 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로 향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인으로 하고 있다. 또 멕시코 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외부에서 오느냐 아니면 내생적인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적인 해결이 동원될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해결이 요구될 것이냐"에 좌우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멕시코 정치 엘리트 충원 역시 이러한 범주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까마리야는 유지의 관성을 갖고 있다. 까마리야 내부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도 그렇고 家長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가족의 '운영 방식'도 그러하다. 또 그 아래 있는 까마리야간에 권력의 공을 놓고 벌이는 게임의 규칙도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멕시코 특유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인식이 까마리야 구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까마리야 시스템에서 변화의 정후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니다. 카르데나스가 PRI 까마리야를 뛰쳐나가 비록 neocardenismo라는 또 다른 까마리야를 만들었지만 까마리야 정치에 대한 거부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암살되는 반칙도 있었다. 특히 까마리야내의 정치 엘리트 충원 성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주목할 만 하다. 비록 그것이 큰 까마리야내에서 그 아래의 까마리야간에 일어나는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이동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動因이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아니면 국내건 국제적이건 [혁명]가족외부에서 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내의 변화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까지 견고해 보이는 PRI 까마리야는 향후, 유지의 관성이 변화의 충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변동의 폭과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로페스 포르티요 내각)

직책	이름	출생지	학력 및 전공	나이	당적당직	교수경험	선출직(전직)
내무	Jesús Reyes Heroles	Veracruz	UNAM(법학)	54	O	O	
외무	Santiago Roel	Nuevo León	멕(법학)	57	O	O	상원
국방	Félix Galván López	Guanajuato	육군대학	63			
해군	Ricardo Cházaro Lara	Veracruz	해군대학	56			
재무	Julio Rodolfo Moctezuma	멕시코시티	UNAM(법학)	49	O	O	재무국장
기획예산	Carlos Tello Macías	스위스	콜럼비아(경제석)	38		O	
수자원	Luis Robles Linares	Baja California	멕(공학)	54			수자원차관
에너지 산업진흥	José Andrés de Oteyza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Cambridge(경제석)	33	O	O	산업진흥국장
상업	Fernando Solana	멕시코시티	UNAM(정치학)	45	O	O	상공장관
농수자원	Francisco Merino Rábago	Guanajuato	자료없음	56	O		농업은행행장
통신교통	Emilio Múgica Montoya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독(경제박)	60	O	O	
공공사업	Pedro Ramírez Vázquez	멕시코시티	UNAM(건축학)	57	O	O	
교육	Porfirio Muñoz Ledo	멕시코시티	UNAM(법학)	43	O	O	노동장관
보건공공 지원	Emilio Martínez Manatou	Tamaulipas	UNAM(의학)	57	O		하원, 상원
노동사회 복지	Pedro Ojeda Paullada	멕시코시티	UNAM(법학)	41	O		노동장관
농지개혁	Jorge Rojo Lugo	Hidalgo	UNAM(법학)	43	O		하원, 주지사
관광	Guillermo Rossel	Hidalgo	UNAM(건축학)	51	O	O	상원
어업	Fernando Raful Miguel	Campeche	UNAM(경제학)	51		O	상원
멕시코 시장	Carlos Hank González	멕시코주	멕시코사법대	46	O		
연방검찰	Oscar Flores Sánchez	Chihuahua	UNAM(법학)	69	O		상원
비서	Enrique Velasco Ibarra	Guanajuato	UNAM(법학)	49		O	재무국장

자료:

1. Roderic Ai Camp, *Biografías de políticos mexicanos 1935-1985*,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2. *Excélsior*, 1976.12.5, 1994.11.27.

부록 2 (델라마드리드 내각)

직책	이름	출생지	학력 및 전공	나이	당적당직	교수경험	선출직(전직)
내무	Manuel Bartlett Díaz	Puebla	UNAM(법학, 정치학), Victoria 대(행정학)	46	O	O	
외무	Bernardo Sepúlveda Amor	멕시코시티	UNAM(법학), Cambridge(법석)	42	O	O	주미대사
국방	Juan Arévalo Gardoqui	멕시코시티	육군대학	61			
해군	Miguel Gómez Ortega	Veracruz	해군대학	64			
재무	Jesús Silva Herzog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에일(경제석)	47		O	재무차관
기획예산	Carlos Salinas de Gortari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하버드(경제학)	33	O	O	기획예산장관
감사원	Francisco Rojas Gutiérrez (1983)	멕시코시티	UNAM(회계학), 이스라엘(경제학)	37	O		델라마드리드 선거참모
에너지 산업진흥	José Andrés de Oteyza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Cambridge(경제학)	39	O	O	
무역산업진흥	Hector Hernández Cervantes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호주(경제학)	58		O	무역산업차관
농수자원	Horacio Ganda Aguilar	Guanajuato	멕시코대학교(농학)	62	O		중앙은행국장
통신교통	Rodolfo Félix Valdés	Sonora	UNAM(공학)	59	O	O	공공사업차관
도시개발환경	Marcelo Javelly Grardo	Veracruz	UNAM(법학)	54			
교육	Jesús Reyes Heroles	Veracruz	UNAM(법학)	60	O	O	학원(내무장관)
보건공공지원	Guillermo Soberón	Guerrero	UNAM(의학), Wisconsin(의학)	56			
노동사회복지	Arsenio Farell Cubillas	멕시코시티	UNAM(법학, 박)	60		O	노동장관
농지개혁	Luis Martínez Vilchica	Michoacán	멕시코대학교(농학)	42	O		농지개혁차관
관광	Antonio Enriquez Sevignac	멕시코시티	캐나다(경영학), 하버드(경영학)	50			재무차관
어업	Pedro Ojeda Paullada	멕시코시티	UNAM(법학)	47	O		어업장관
멕시코 시장	Ramón Aguirre Velázquez	Guanajuato	UNAM(회계학)	46	O	O	기획예산차관
연방검찰	Sergio García Ramírez	Jalisco	UNAM(법학)	43		O	노동장관
비서	Emilio Gamboa Patrón	멕시코시티	멕시코(경영학)	31	O		(델라마드리드) 기획예산장관비서

자료:

1. Roderic Ai Camp, *Biografías de políticos mexicanos 1935-1985*,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2. Sobre la Secretaría de Energía(<http://www.energia.gob.mx/frame6.html>)
3.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Encyclopédie de México*(vol.12), 1987.

부록 3 (살리나스 내각)

직책	이름	출생지	학력 및 전공	나이	당적당적	교수경험	선출직(전직)
내무	Fernando Gutiérrez Barrios	Veracruz	육군대학	61	O		주지사
외무	Fernando Solana Morales	멕시코시티	UNAM(정치학)	57	O	O	교육장관 BANAMEX 행장
국방	Antonio Riviello Bazán	멕시코시티	육군대학	62			
해군	Luis Carlos Ruano	Veracruz	해군대학	61			
재무	Pedro Aspe Arrieta	멕시코시티	EMTAM(경제학), MIT(경제학)	38	O	O	기획차관
기획예산	Ernesto Zedillo	멕시코시티	EMIPN(경제학), 예일(경제학)	37	O	O	예산기획차관
감시원	Maria Elena Vázquez	멕시코시티	UNAM(사회학)	34	O	O	
에너지	Fernando Hirshart	Chihuahua	UNAM(공학)	74		O	에너지차관
무역산업진흥	Jaime Serra Puche	멕시코시티	UNAM(정치학), 예일(경제학)	37	O	O	제무차관
농수자원	Jorge de la Vega Domínguez	Chiapas	UNAM(경제학)	57	O	O	하원
통신교통	Andrés Caso Lombardo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64		O	공공사업차관
도시개발환경	Patricia Chirinos Calero	Veracruz	UNAM(경제학)	49	O		
교육	Manuel Bartlett Díaz	Puebla	UNAM(법학, 정치학), 영Victor 내대(행정학)	52	O	O	내무장관
보건	Jesús Kumate	Sinaloa	군 의학교(의학), 국립 의학교(의학)	64		O	
노동사회복지	Arsenio Farell Cubillas	멕시코시티	UNAM(법학, 법)	66		O	노동장관
농지개혁	Victor Manuel Cervera	Yucatán	ENP	52	O		주지사
관광	Carlos Hank González	멕시코주	멕시코사범대	58	O		주지사
어업	Maria de los Angeles Moreno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44	O	O	
멕시코 시장	Manuel Camacho Solís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프린스턴(행 정학)	42	O	O	PRI 의장
연방검찰	Enrique Alvarez del Castillo	Jalisco	UNAM(법학부)	66	O	O	주지사
비서실장	José Córdoba Montoya	프랑스	스탠퍼드(경제학)	38	O	O	살리나스 선거특별고문
비서	Andrés Massieu Berlanga	멕시코시티	레이베로(공학)	39	O		
대변인	Otto Granados Roldán	Aguascalientes	UNAM(법학), 클레스(정치학)	32	O		

자료:

1. Presidency of Mexico, *Mexican Agenda*, 1991
2. Roderic Ai Camp, *Biografías de políticos mexicanos 1935-1985*,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3.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iccionario Biográfico del Gobierno Mexicano 1992*,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4. Roderic Ai Camp, *Reclutamiento político en México*, p. 305.

부록 4 [세디요 내각]

직책	이름	출생지	학력 및 전공	나이	당적당직	교수경험	선출직(전직)
내무	Esteban Moctezuma Barragán	멕시코시티	UNAM(법학), 캠브리지(정치경제학)	40	O		교육차관
외무	José Angel Gurria Treviño	Tamaulipas	영Leeds(제정학), USC(국제관계학), 하버드(제정학)	44	O		NAFINSA사장, 세디요선거참모
국방	Enrique Cervantes Aguirre	Puebla	육군대학	59			
해군	José Ramón Lozano Franco	Tlaxcala	해군대학	42			
체무	Jaime Serra Puche	멕시코시티	UNAM(정치학), 베클레스(경제학), 예일(경제학)	43	O	O	상공장관
감사원	Norma Samaniego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네덜란드사회학연구소(경제기획학)	50	O		노동차관
에너지	José Ignacio Richardo Pagaza	멕시코주	멕시코(국제관계학), UNAM(법학), 영London 경제스쿨(행정학), Dartmouth(경영학)	59	O	O	주지사
상공	Herminio Blanco Mendoza	Chihuahua	멕시코(경제학), 시카고(경제학)	44	O	O	NAFTA 실무단장, 상공차관
농·수자원	Arturo Warman Gryj	멕시코시티	멕시코립인류학교(인종학), UNAM(인류학), 에이비로(인류학)	57		O	
통신교통	Guillermo Ortiz Martínez	멕시코시티	UNAM(경제학), 스텐포드(경제학)	46	O	O	체무차관
사회개발	Carlos Rojas Gutiérrez	멕시코시티	UNAM(정치, 산업공학), 멕시코(경영학)	40	O	O	사회개발차관
교육	Fausto Alzati Araiza	Guerrero	UNAM(법학), 하버드(정치경제학)	41	O		시장
보건	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시티	UNAM(의학), 미네소타대(식사)	43		O	
노동사회복지	Santiago Ohate Laborde	멕시코시티	UNAM(법학), 영London 경제스쿨(경제학), 워스콘신(법학)	41	O	O	하원
농지개혁	Miguel Limón Rojas	멕시코시티	UNAM(법학), 볼Aix-Marseille(법학)	51	O	O	사회개발차관
관광	Silvia Hernández	Queretaro	UNAM(정치학), 영London 경제스쿨(행정학)	46	O		상원
어업	Julia Carabias	멕시코시티	UNAM(학, 식)	40		O	PRONASOL 자문위원
연방검찰	Antonio Lozano Garda	멕시코시티	UNAM(법학)	41	PAN		
예시코시장	Oscar Espinoza Villarreal	멕시코시티	UNAM(경영학)	40	O		NAFINSA사장
대통령비서	Liébano Sáenz	Chihuahua	UNAM(법학사), 텍사스(행정학)	41			세디요선거참모
비서실장	Luis Tellez Kuenzler	멕시코시티	UNAM(법학) 메ITAM(경제학), MIT(경제학)	36	O	O	농업차관
대변인	Carlos Salomón Cimara	Tlaxcala	UNAM(경제학)	44		O	구청장

자료:

1. La Epoca(no. 183), 1994.12.5,
2. La Jornada, 1994.12.1,
3.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iccionario Biográfico del Gobierno Mexicano 1992,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4. Proceso(no. 944), 1994.12.5
5. Excélsior, 1994.12.5

부록 5 (세디요 내각(1998.8))

직책	이름	출생지	학력 및 전공	나이	당적당직	교수경험	선출직(천직)
내무	Francisco Labastida Ochoa	Sinaloa	UNAM(경제학), 칠레(ILPES)(사회학)	56	O	O	주차사
외무	Rosario Green Madas	멕시코시티	UNAM(국제관계학), 멕시코(경제학), 풀통비아(중남미지역학부)	57		O	외무차관
국방	Enrique Cervantes Aguirre	Puebla	육군대학	63			
해군	José Ramón Lozano Franco	Tlaxcala	해군대학	46			
체육	José Ángel Gurría Treviño	Tamaulipas	UNAM(경제학), 영Leeds(제정학), 하버드수학	48	O		NAFINSA사장, 선거참모
감사원	Arsenio Farell Cubillas	멕시코시티	UNAM(법학, 법)	76		O	노동차관
에너지	Luis Téllez Kuenzler	멕시코시티	UNAM(법학), 멕ITAM(경제학), MIT(경제학)	40	O	O	농업차관
상공	Herminio Blanco Mendoza	Chihuahua	멕Iesm(경제학), 시카고(경제학)	48	O	O	NAFTA실무단장, 상공차관
농목수자원	Romárico Daniel Arroyo	Hidalgo	UNAM(공학), 스펜포드대(석)	56		O	에너지차관
통신교통	Carlos Ruiz Sacristán	멕시코시티	멕아나(경영학), 미노스웨스턴(경영학)	49			체무차관
사회개발	Esteban Moctezuma Barragán	멕시코시티	UNAM(법학), 캘브리지(정치경제학)	44		O	교육차관
교육	Miguel Limón Rojas	멕시코시티	UNAM(법학), 브Aix-Marseille(법학)	55	O	O	사회개발차관
보건	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시티	UNAM(의학), 미네소타(석사)	47		O	
노동사회복지	José Antonio González	멕시코시티	멕법학교(법학), 영Warwick(행정학)	46	O	O	하원
농지개혁	Arturo Warman Gryj	멕시코시티	멕국립인류학교(인종학), UNAM(인류학), 멕이에로(인류학)	61		O	
관광	Oscar Espinoza Villarreal	멕시코시티	UNAM(경영학)	44	O		NAFINSA사장
어업환경, 자원	Julia Carabias	멕시코시티	UNAM(학, 석)	44		O	PRONASOL 차운위원
연방검찰	Jorge Madrazo Cuéllar	멕시코시티	UNAM(법학, 석, 박)	45		O	인권위원장
멕시코 시장	직선으로 선출						
대통령 비서	Liébano Sáenz	Chihuahua	UNAM(법학), 멕사스(행정학)	45			세디요선거참모
비서실장	비서실 폐지						
대변인	Fernando Lerdo de Tejada	멕시코시티	멕법학교(법학), 스anford(정치경제학)	48	O	O	하원

자료:

1. Sistema de Internet de la Presidencia de Republica(<http://www.presidencia.gob.mx>)
2. La Epoca(no. 345), 1998.1.12
3. La Epoca(no. 183), 1994.12.5
4.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iccionario Biográfico del Gobierno Mexicano 1992,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참고문헌

- Amparo Casar, María, "Las relaciones gobierno-partido en México" en Cesar Cansino(coord), *Gobiernos y Partidos en América Latina*, Mexico: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1997.
- Basáñez, Miguel, *El pulso de los sexenios, 20 años de crisis en México*, Siglo XXI, 1996.
- Blanksten, George I. "The Politics of Latin America", in Gabriel A. Almond & James S. Coleman(edit),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Beltrán, Ulises, et, al., *Los mexicanos de los noventa*, Me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de UNAM, 1997.
- Camp, Roderic Ai, *Reclutamiento político en México*, Mexico: Siglo XXI, 1996.
- _____, *Politics in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Biografías de políticos mexicanos 1935-1985*,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 _____, "Camarilla in Mexican Politics: The case of the Salinas Cabinet", *Mexican Studies* 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nter 1990
- _____, *Los empresarios y la política en México*,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9.
- _____, *Los líderes políticos de México*,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3.
- Centeno, Miguel Angel & Sylvia Maxfield, "The Marriage of Finance and Order: Changes in the Mexican Political Elite", i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4(1), 1992.
- Cornelius, Wayne & Ann Craig, "Politics in Mexico", in Gabriel

-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8.
- Hernández, Rogelio, "La división de élite política mexicana", Carlos Bazzdresch, et. al(compiladores), *México Auge, Crisis y Ajuste*,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 Kaufman, Robert, "Corporatism, Clientelism and Partisan Conflict: A Study of Seve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James Malloy(edit), *Aut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7.
- Knight, Alan, "State power and Political stability in Mexico", Niel Harvey(edit), *Mexico Dilemmas of Transition*, Londo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1993.
- Krauze, Enrique, *La Presidencia Imperial, Ascenso y caída del sistema político mexicano(1940-1996)*, Mexico: Tusqueta Editores, 1997.
- León, Samuel e Igancio Marván, *en el cardenismo(1934-1940)*, Mexico: UNAM Siglo XXI, 1985.
- Mejia Prieto, Jorge, *Mexicanos Triunfadores*, Mexico: Panorama, 1992.
- Needler, Martin C., *Mexican Politics The Containment of Conflict*, PRAEGER, 1982.
- _____, *Politics and Society in Mexico*, pp. 75-77,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71,
- Paz, Octavio, *El Laberinto de la Soledad*,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6,
- Pazos, Luis, *Hacia dónde va Salinas*, Mexico: Diana, 1989.
- Presidencia de la Repùblica, *Diccionario Biográfico del Gobierno Mexicano 1992*,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 Presidency of Mexico, *Mexican Agenda*, 1991.

- Rossi, Ernest & Jack Plano, *Latin America: A Polit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1992.
-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Enciclopedia de México* 12, 1987.
- Stevens, Evelyn, "Mexico in the 1980s: From Authoritarianism to Power Sharing?", in Howard J. Wiarda & Harvey F. Kline(edit),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Westview Press, 1985.
- Tenenbaum, Barbara A.(edit),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vol. 4),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6.

Sistema de Internet de la Presidencia de Repùblica ([http://www.presidencia.gob.mx /pages](http://www.presidencia.gob.mx/pages))

El Calendario Cívico del Gobierno del Estado de Nuevo León (<http://www.pixel.com.mx/info-gral/info-mex/pasajes/preparat.html>).

Organigrama de la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http://www.sre.gob.mx/acerca/organigrama>).

Sobre la Secretaría de Energía (<http://www.energia.gob.mx/frame6.html>)

Diccionario Anaya, Spain, Anaya, 1987.

Diccionario Larousse, Mexico, Larousse, 1988.

Spanish Dictiona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roceso(주간지)

La Epoca(주간지)

La Jornada(일간지)

Excélsior(일간지)